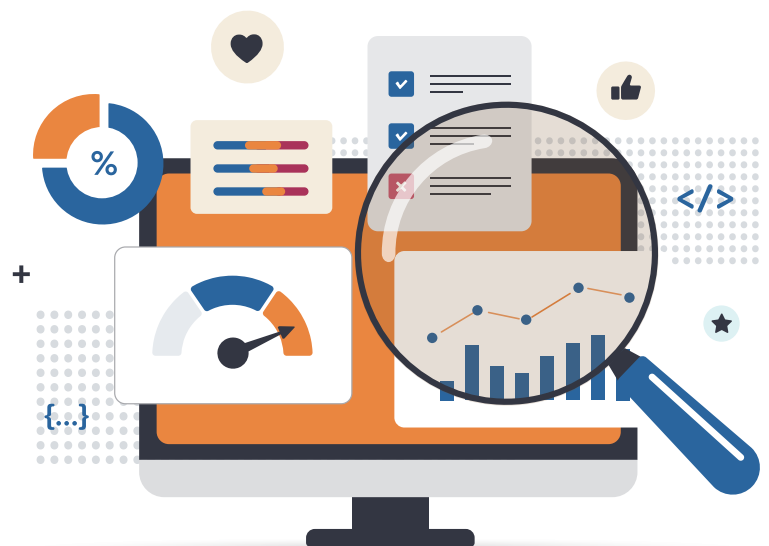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8. 23.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12



재외교육기관포털에서 만나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유진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연구원

- ☉ 정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16개국에 한국학교 34개교, 22개국에 한국교육원 47개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 재외교육기관포털(okep.moe.go.kr)은 세계 각지에 흩어진 재외교육기관의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모으고 나누는 통합 교육정보망으로, 재외교육을 뒷받침하고 있음

우리 교육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재외국민의 교육을 이어 가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현지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두 기관이 어떤 곳이며 세계 각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그 현황과 소식을 전하며 재외교육 현장을 뒷받침하는 재외교육기관포털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멀게만 느껴지던 재외교육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그림1 재외교육기관 학생 현황



* 2026년 재외교육기관 현황 통계자료 조사 기준(2026년 4월)

한국학교

한국학교는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정규학교이다. 교육부장관과 소재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준하여 운영된다. 학생들은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학업의 단절 없이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국내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한국학교는 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소재국의 여건에 맞춰 교육과정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재국의 특성과 외국어 교육 수요를 반영해 현지어와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현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국 이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국학교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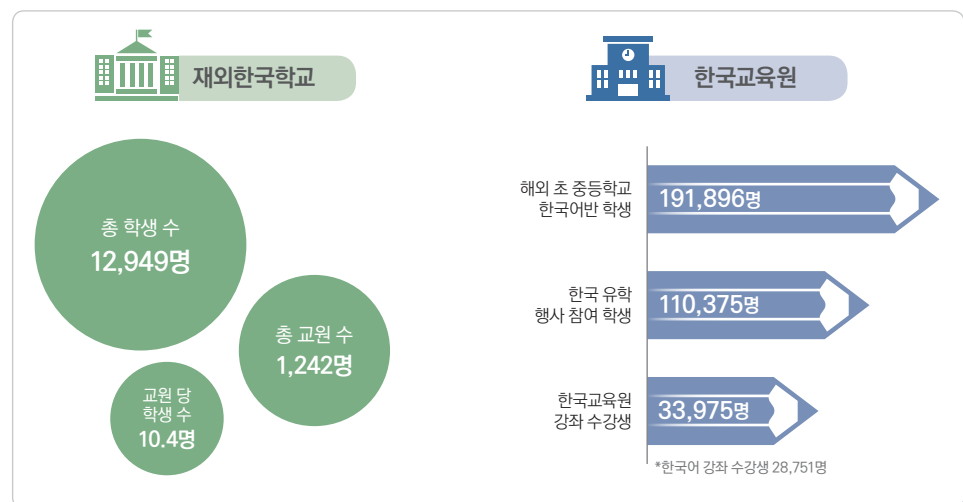
배우는 교육은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학생들에게는 귀국 후 국내의 학업과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준비 과정이 된다.

한국학교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34개교¹⁾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아시아 지역에 전체의 약 79%인 27개교가 자리하고 있다. 그 밖에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에서 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재학생은 12,949명으로, 598개 학급에서 전임교원 1,242명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4개교 가운데 29개교가 10명 미만이며, 가장 많은 학교도 20명을 넘지 않는다. 전체 평균은 10.4명 수준이다.

학교별 재학생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학교는 재학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재학생이 10명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재외교육 지원의 취지를 잘 보여준다.

각 학교는 현지 여건과 교육 수요에 따라 학교급을 달리하여 운영한다. 34개교 가운데 초등학교 과정은 33개교, 중학교 과정은 25개교, 고등학교 과정은 23개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유치원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도 18개교에 이른다. 학교급별 재학생은 초등학교가 5,237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고등학생 3,922명(30.3%), 중학생 3,463명(26.7%), 유치원생 327명(2.5%) 순이다.

그림 2 재외교육기관 학생 현황



* 2026년 재외교육기관 현황·통계자료 조사 기준(2026년 4월)

1)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하 모든 수치는 2026년 4월 재외교육기관 현황 및 통계 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와 현지 사회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 외국에 설치된 교육기관이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한국학교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면,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와 현지인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한국교육원의 첫 번째 역할은 현지 사회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것이다. 해외 각국의 공교육에서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지 초·중등학교의 한국어반 수업을 확산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비롯한 학생 대상 교내·외 행사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국외 시행을 담당하여,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교육원의 두 번째 역할은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지원이다. 재외동포 사회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한글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교재를 보급한다. 한국교육원 자체적으로도 한국어 강좌와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꾸어 가도록 돕는다.

현지인과 재외동포 학생들을 한국 유학으로 연결하는 것은 한국교육원의 세 번째 역할이다. 한국어반 학생을 비롯해 한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양질의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거나 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유학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원 내에 11개소의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하여, 한국 유학 정보 제공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한국 유학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교육원은 전 세계 22개국에서 47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1963년 재외동포를 위한 민족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60여 년 동안 재외동포 사회의 성장과 교육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주와 유럽,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왔다. 최근에는 미국 시애틀,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에 새로운 교육원이 문을 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의 운영 성과는 해외 한국어 채택 실적의 증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25년 말 기준, 해외 47개국 2,777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교육원 관할 지역의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학생 수만 191,896명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약 50% 증가한 수치로서, 세계 각지의 학교에서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의 하나로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유학설명회와 유학박람회를 개최하며 한국 유학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관련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110,375명에 이른다. 같은 해 한국 유학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학생도 약 4,700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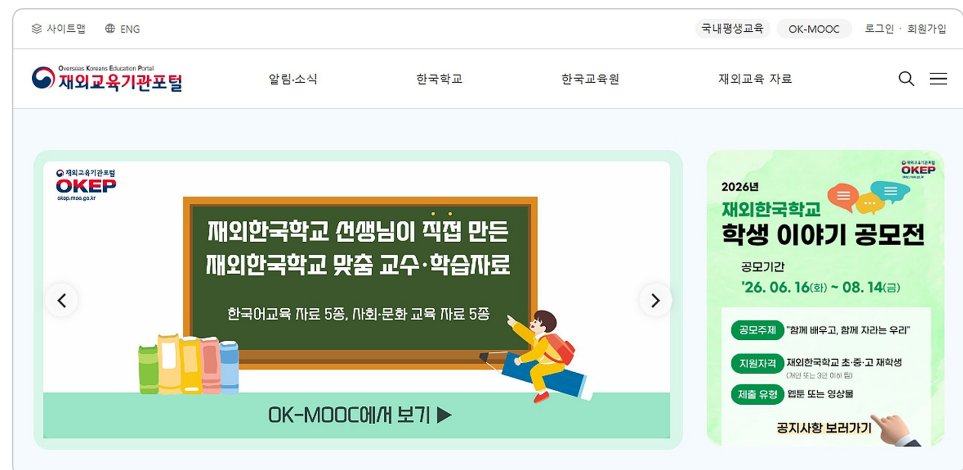
한국교육원이 직접 운영하는 강좌에도 배움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한국어 강좌는 1,200개이며, 수강생은 28,751명에 달한다. 이는

2023년의 731개 강좌, 20,580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전체 수강생의 약 90%가 현지인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현지의 높은 수요가 교육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사·문화 교실 등 235개의 평생교육 강좌에도 5,224명이 참여했다. 한국어 강좌와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생을 합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약 3만 4천 명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경험한 셈이다.

재외교육기관포털

그렇다면 내가 관심 있는 나라에도 한국학교가 있을까, 그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소식과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학부모와 학생은 한국학교의 소식과 교육 정보를, 교직원들은 교육 자료와 업무에 필요한 도움을 찾는다. 재외교육이 궁금한 국민이라면 우리 교육이 세계 각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길이 시작되는 문은 하나다. 바로 '재외교육기관포털(okep.moe.go.kr)'이다.

그림 3 재외교육기관포털 메인화면



출처. 재외교육기관포털(okep.moe.go.kr)

재외교육기관포털은 세계 각지에 흩어진 재외교육기관의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모으고 나누는 국내 유일의 통합 교육정보망이다. 재외동포의 학습권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외교육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5월 문을 열었다.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과 한국디지털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재외교육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한 해 방문은 1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후로도 포털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① 기관의 현황을 한자리에서

그림 4 재외교육기관포털 학교정보 조회 화면



출처: 재외교육기관포털(okep.mo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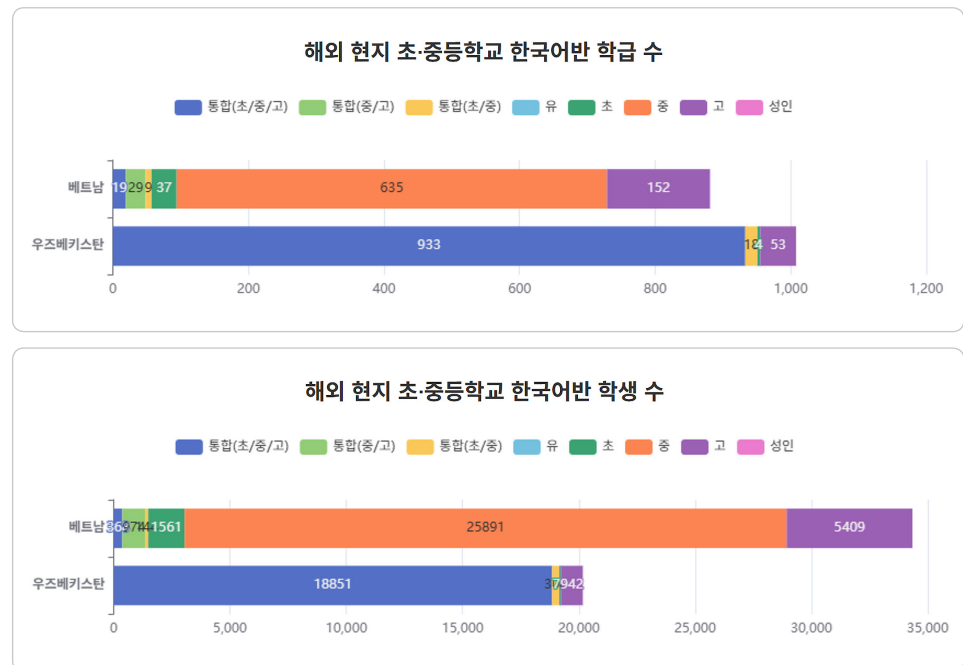
저마다의 사정으로 해외에 살게 된 가정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은 자녀가 다닐 학교일 것이다. 그 나라에 한국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몇 학년까지 운영하는지, 학생은 얼마나 되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포털에서 나라를 고르면 그곳 한국학교의 기본 정보와 설립 현황부터 시설 현황, 학생 수와 성별·체류 유형별 학생 수, 졸업생의 진학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교직원 수와 과목별 교원 현황, 예·결산 현황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까지 열려 있어, 학교의 규모와 살림, 운영의 모습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개년의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 학교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것은 각 학교가 올려 둔 연간 교육계획서와 학교규칙 및 규정이다. 연간 교육계획서에는 그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하며 평가할 것인지가 담겨 있다. 어떤 과목을 몇 시간씩 배우는지, 현지어 수업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학교 행사와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숫자가 아닌 학교의 언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한국학교의 교육 철학이 그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이 문서를 펼쳐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학교규칙을 비롯한 운영 규정까지 공개되어 있어, 멀리서도 학교의 일상을 그려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 답도 포털에 있다. 어느 나라에 교육원이 있는지, 언제 문을 열었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교원은 몇 명이며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설 강좌 현황을 보면 그 교육원이 한국어 강좌와 한국 역사·문화 강좌를 어떤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연간 업무계획서를 통해 한 해의 활동 계획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 재외교육기관포털 해외 한국어 채택 현황 조회 화면



출처: 재외교육기관포털(okep.moe.go.kr)

교육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도 함께 담긴다. 관할지역 내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현지 초·중등학교 현황이 제공되며, 학교급별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나누다

앞서 살펴본 현황과 통계가 기관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포털에는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도 함께 담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저마다의 교육을 이어가는 기관들에게, 한 학교가 찾아낸 좋은 수업 방법이나 한 교육원이 여러 해에 걸쳐 쌓은 운영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이다. 포털은 이러한 경험이 서로에게 닿도록 잇는 자리가 되고 있다.

가장 일상적인 나눔은 각 기관이 전하는 소식이다. 포털에는 행사 소식과 사진첩, 홍보자료가 월평균 140여 건씩 올라온다. 어느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고 교육원에서 어떤 강좌가 문을 열었는지가 사진과 함께 전해지면서, 멀리 있는 기관들이 서로의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는 반기별로 발행되는 온라인 소식지 'OK-e Now'에 실린다. 한 호에 40여 편의 글이 실리는데, 기관장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직접 쓴 것들이다. 한 해 동안 공들인 교육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기도 하고, 현지 학생들과 함께한 수업을 어떻게 꾸렸는지 나누기도 하며, 재외교육을 바라보는 생각을 칼럼과 에세이로 풀어내기도 한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던 다른 기관의 교사와 학부모에게 닿는 글들이다.

나누는 주체는 어른들만이 아니다. 포털에서 운영하는 재외한국학교 학생 리포터단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현지의 교육 현장을 취재해 글과 영상으로 담아내고, 서로 다른 지역과 학교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공모전에서도 학생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그림과 영상으로 풀어낸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또래의 이야기를 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는 일은, 한 나라의 교실 안에서는 얻기 어려운 경험이다.

③ 교육을 뒷받침하다

재외교육 현장에 선 교사에게는 현지의 교육 여건에 맞는 수업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필요한 연수를 받을 기회도 국내에 비해 적다. 포털이 교수·학습자료를 비롯한 여러 교육 자료와 연구자료, 연수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자료의 상당수가 재외한국학교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포털의 지원을 통해 매년 현장의 교사들이 소재국의 특성과 재외교육의 현안을 반영한 자료를 만들어 낸다. 재외교육 현장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만든 학습지도안과 수업용 자료가 다른 나라의 교육 현장에 공유되는 셈이다. 디지털 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 교육처럼 교사의 역량 강화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상시연수 콘텐츠도 해마다 새로 개발되어 제공된다. 여기에 재외교육지원센터가 개발한 연구자료와 연수 및 포럼 자료 등이 더해진다.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도 넓히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지만 재외한국학교는 교사 수와 개설 강좌에 한계가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어렵다. 재외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국내지원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포털을 통해 지원되면서, 재학중인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이야기는 포털에서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은 재외교육기관포털이 담고 있는 것의 일부이다. 포털은 재외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오가는 관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 곳곳의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우리 교육을 어떤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그 기록과 소식도 이곳으로 모인다. 세계 속 우리 교육이 궁금하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재외교육기관포털에서 그 모습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